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나부 성전

이 인물 그림들을 잘라서 교회사 이야기를 전해 보세요!



제인 매닝



나부 성전

초기 성도들은 나부라 불리는 곳에 정착했어요. 그들은 높이 많은 땅을 개간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곳에 집을 지었어요. 또, 나부 성전도 지었답니다! 남성들은 돌을 자르고 운반했어요. 여성들은 음식을 만들고, 일꾼들의 옷을 기워 주고,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푼돈을 모았어요. 상호부조회가 조직되었고, 에머 스미스가 초대 회장이 되었어요.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교회의 새로운 회원들이 나부로 모이고 있었어요. 제인 매닝은 성도들과 함께 모이기 위해 뉴욕에서부터 1,290km를 걸어왔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할 때 2017년 3월호에 나온 에머 스미스 그림도 활용할 수 있어요! liahona.lds.org에서 더 많은 교회사의 인물들을 찾아보세요.